

공연중 가스폭발 대형사고 가상 훈련

포천소방서, 2007년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11월 7일 오후2시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소재한 반월 아트홀에서 2007년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하여 13개 유관기관·단체 등 총 290여명과 장비 31대가 참가한 이번 대규모 종합훈련은 반월아트홀 1층 대극장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로 대형화재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형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포천소방서와 반월아트홀 직장자 위소방대는 1층 대극장에서 공연중 가스폭발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되는 가상 상황을 설정, 단체와에 임하고 이어서 포천시 재난안전 부서, 보건소, 경찰서, KT, 한전, 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포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인명구조와 재해복구지원 기관들이 총출동하여 일상불러한 재난상황 대응력을 구사했다.

이날 강령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훈련에 참가한 기관 및 단체들의 눈부신 신속 대처능력과 노고를 치하하며 "2007년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각종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지휘체제를 확립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위기기관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유사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화된 재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포천소방서는 11월7일 오후2시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소재한 반월 아트홀에서 2007년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급구조 종합훈련으로 각종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지휘체제를 확립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위기기관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유사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화된 재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World-OKTA - 포천시 양해각서 체결

포천시 제12차 한민족 경제공동체 대회 방문

포천시는 지난 10월25일부터 30일까지 5박6일간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주관으로 호주 시드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2차 한민족 경제공동체 대회에 공식 초청인사로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51개국 94개 도시에서 활동 중인 1,000여명의 세계해외 한인무역경제인들이 참가한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의 공식적인 연중행사로서 국내에서는 산자위 소속 이규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원의 다수가 참석하였고, 정부 측에서도 산업자원부 오영호 제1차관을 비롯한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공간으로 제공하며 세계 각 지역에 활동 중인 세계무역경제인들이 모국 방문시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포천시에서는 월드옥타 타운조성을 위하여 부지선정 및 부지무상사용등 SOC인프라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에서는 지난 7월 포천시에서 5박6일간 개최된 제5기 재외동포 모국방문 차세대무역스쿨 행사가 주변 여건 등 (병영체합)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차세대 무역스쿨 행사 개최를 포천시로 하자는 요청을 하고 포천시에서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호주 시드니에서 포천시와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고난과 승리



이보형 본지시무위원장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다. 18세 때 교향악단의 단원이 되었는 데 그는 시력이 나빠서 연주 때마다 앞에 펼쳐 놓은 악보를 볼 수 없어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악보를 외워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 것이 습관화되어 오페라 특성상 조화를 이뤄야했기에 다른 파트 악보까지 모조리 외워버렸습니다. 한번은 연주를 막 앞두고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연주를 지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논 끝에 '악보를 모조리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여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모든 곡을 잘 소화하여 연주를 마쳤습니다. 이 것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훗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역경과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를 또 다른 기회로 삼으시길 기도합니다.

파도를 만나 파도에 얻어맞는 자도 있지만 큰 파도를 찾아가서 파도타기를 즐기는 자도 있습니다. 좋은 글 중에서 토스카니니는 시력이 나쁜 것이 슬프게 생각하여 좌절하지 않고 의연히 극복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국의 역사학자의 국가의 역사도 도전(Challenge)과 응전(Response)의 역사로 해석한 것과 같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운명의 여신은 그의 편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와 태도에 따라 역경을 만나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극복 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역경을 깊이 생각하며 인생의 길을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포천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2천800포기 어려운 이웃에 전달



포천새마을회는 11월7일 최계옥 포천시부녀회장 직책에서 김장김치 2천8백 포기를 담가 관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해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포천새마을회는 11월7일 최계옥 포천시부녀회장 직책에서 김장김치 2천8백 포기를 담가 관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해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포천시 남·여 새마을지도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한국전력포천지점에 배부 300포기와 양념을 지원하고 10여명의 직원이 동참해 이번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김장담그기 참여자들은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김치속을 버무렸다"고 전했다.

포천시와 새마을회는 소외된 곳에서 외로운 삶을 사는 불우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동산촌마을 제1회 잣숲 걷기대회 개최

속 잣을 음미 체험 행사 소중한 추억의 기회



포천시는 11월 3일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하늘아래 첫 동네 신북면 지동산촌 정보화마을에서 제1회 잣 숲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시는 11월 3일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하늘아래 첫 동네 신북면 지동산촌 정보화마을에서 제1회 잣 숲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남궁동 포천시산림조합장, 운영창 경제농경국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잣숲을 걸으며 아름다운 산골의 추억을 남겼다.

참가자들은 지동산촌마을을 일구 삼거리에서부터 잣 숲 임도(해발 400m 5km)의 단풍과 야생화의 어우러진 길을 걸으며 잣을 주워 보고 대추나무 방망이로 부수어 하얀 속잣을 음미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를 가지며 건강도 챙기고 가족,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긴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잣 숲 걷기대회 경품으로 건강에 좋은 잣과 농·특산물, 지동산촌마을 펜션 숙박권을 증정했으며 가족과 참가자를 위한 잣까기, 떡메치기 체험 및 통째지 삼겹살구이, 종식, 잣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노인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개최

34개팀 240여명 선수 참여 실력 발휘

포천시 노인회장배 게이트볼 대회가 31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박윤국 포천시장, 오병익 게이트볼연합회장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선수, 임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게이트볼 대회는 34개팀 24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포천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바 있으며 게이트볼을 즐기는 노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활양과 건강증진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종목이라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평소 같고 닮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후회 없는 결과를 얻길 바라며 승부를 떠나 포천시 게이트볼 선수 모두가 하나 되는 대회를 기대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노인회장배 게이트볼 대회가 31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박윤국 포천시장, 오병익 게이트볼연합회장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선수, 임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호국정신 함양·안보의식 계도

21C 포천울곡포럼 창립 및 제1차 포럼



포천시 재향군인회는 10월24일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21C 포천울곡포럼 창립 및 제1차 포럼을 실시했다.

포천시 재향군인회(회장 이광호)는 10월2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21C 포천울곡포럼 창립 및 제1차 포럼을 실시했다.

이날 창립한 21C 포천울곡포럼은 남북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의식 계도와 포천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공익활동과 안보포럼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에 목적을 두고 이광림 포천시의회 의장을 21C 포천울곡포럼 의장으로 추대했다. 창립회원은 포천시 10개 안보단체 회장과 사무장 20명, 포천시 재향군인회 이사 등 77명, 향군 고문 및 자문위원 10명, 예비군 동대장 13명등 모두 120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이어 안보복지

대학 김윤택 교수를 초청해 북핵문제와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창립한 21C 포천울곡포럼 창립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광림▶운영위원장 이광호▶운영위원(당년직) 최기권 박길원 이기영 윤중성 원종빈▶운영위원(위촉직) 이우형 김성남 이규환 이금중 서동원▶회원 박용기 김중식 안양갑 순화원 이광수 윤태근 조병욱 이순휘 송충열 윤준근 최영호 김나은 박승언 백승미 김금자 이한준 김양자 이인용 구분수 박종서 김광원 김익식 김영일 강현자 양영원 박덕현 전상철 김종택 조성선 서정택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여의도 시위를 다녀와서



김기호 주부영재지도교

"엄 터리 국가 균형정책, 경기북부의 발달정책이다", "포천 연천과 부산 대전을 똑같은 경제지역이 아니게 된 말이나", "원칙 없는 국가 균형 발전 반대한다."

지난 11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진 현장의 구호들이다.

경기도에서 포천·연천·동두천·가평·양평·양주 등은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안에 같은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인데 타당성이 없으며 불합리하고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지역분류를 바로 잡기 위해 합동으로 반대 집회를 갖게 된 것이다.

지역분류다 합은 전국 시·군을 4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 낙후지역 2단계 중진지역 3단계 성장지역 4단계 발전지역으로 나누어 졌다. 이중 우리 포천시가 3단계인 성장지역으로 책정되어 현재 산업지원부의 인으로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것이다.

쉽게 풀어보면 아주 못사는 지역, 못사는 지역, 잘 사는 지역, 아주 잘 사는 지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

타 도의 시·군과 비교 해보면 우리와 같은 성장지역으로는 충청권의 대전, 호남권의 광주광역시, 영남권의 부산·대구 등이다. 그러면 왜 성장 지역에서 당초 안처럼 정책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하향 분류를 원하는가 하면 지역 분류에 따라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기업 부담 분 일부 감면 등과 국가 예산 편성 시 지방행정 보조금과 감 등의 민강 사안으로 시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간 군사시설 규제 등 특별규제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최전방낙후지역으로서 여러모로 재산상의 직간접 피해를 받은 물론이고 경제 활동에도 지대한 저해 요인이되었는은 누구나 피부로 느꼈을 뿐더러 우리 포천시는 접경지역 6개면, 오지지역 2개면이 낙후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을 성장지역으로 묶는 것은 단지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이다.

집회 현장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이것이 부자집 담 옆에 거적방 깔고 살아도 옆이라는 이유 때문

에 부자로 취급된다면 이 얼마나 모순이며 우매한 정책일까? 이에 우리는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우리의 권익을 찾고자 함이고 의분에 차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으며 먹고 살기도 바쁘다 바쁜 시간을 희생하며 서울 여의도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로의 행렬은 이달말 까지 각 읍면동 단위로 이어질 예정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포천시민의 절절한 열망의 소리가 국회에 확실하게 전달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마음과 마음을 단합하여 의사당 안의 결정권자들의 가슴과 머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수와 큰 목소리가 이끈다지만 소수가 다수를 움직일 수 있고 낮은 소리가 큰 함성을 제압할 수 있다. 비록 많지 않은 2~300명의 합동 집회였지만 한 사람 한사람의 결의에 찬 모습은 분명 우리의 희망 사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실하게 했다. 다시 한번 포천 연천 동두천 가평 양평 양주의 모든 국민이 마음을 합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높이높은 가을 하늘로 쏘아 올린다.

시인의窓

낙엽 -보라, 모두가 떨어진다(릴케)

김년균(시인,사) 한국문인협회이사장

벌써 돌아갈 가고 있네요. 산 너머 바다 건너 이만큼 가고 있네요. 많이도 늙으셨네요. 세월을 먹은 탓에 주름살이 늘고, 역세게 산 탓에 몸이 다치셨네요.

다 같이 와서 다함께 가는 마당에 어떤 이는 손에 꽃을 들고, 어떤 이는 흥축하게 칼을 들고 있네요. 어디다 올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들고 있네요. 서산 너머로 해 지기 전에, 어디로 갈 것인지, 돌아갈 곳을 찾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하여튼 오랜만입니다.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